

# 오사카, 교토, 나라의 역사와 현존하는 문화

우리왔조

구민혁 (심리 12)  
유지연 (문곤 13)  
김솔아 (행정 14)  
이채원 (사학 15)  
임예지 (정의 15)



▲ 간사이 대학교에서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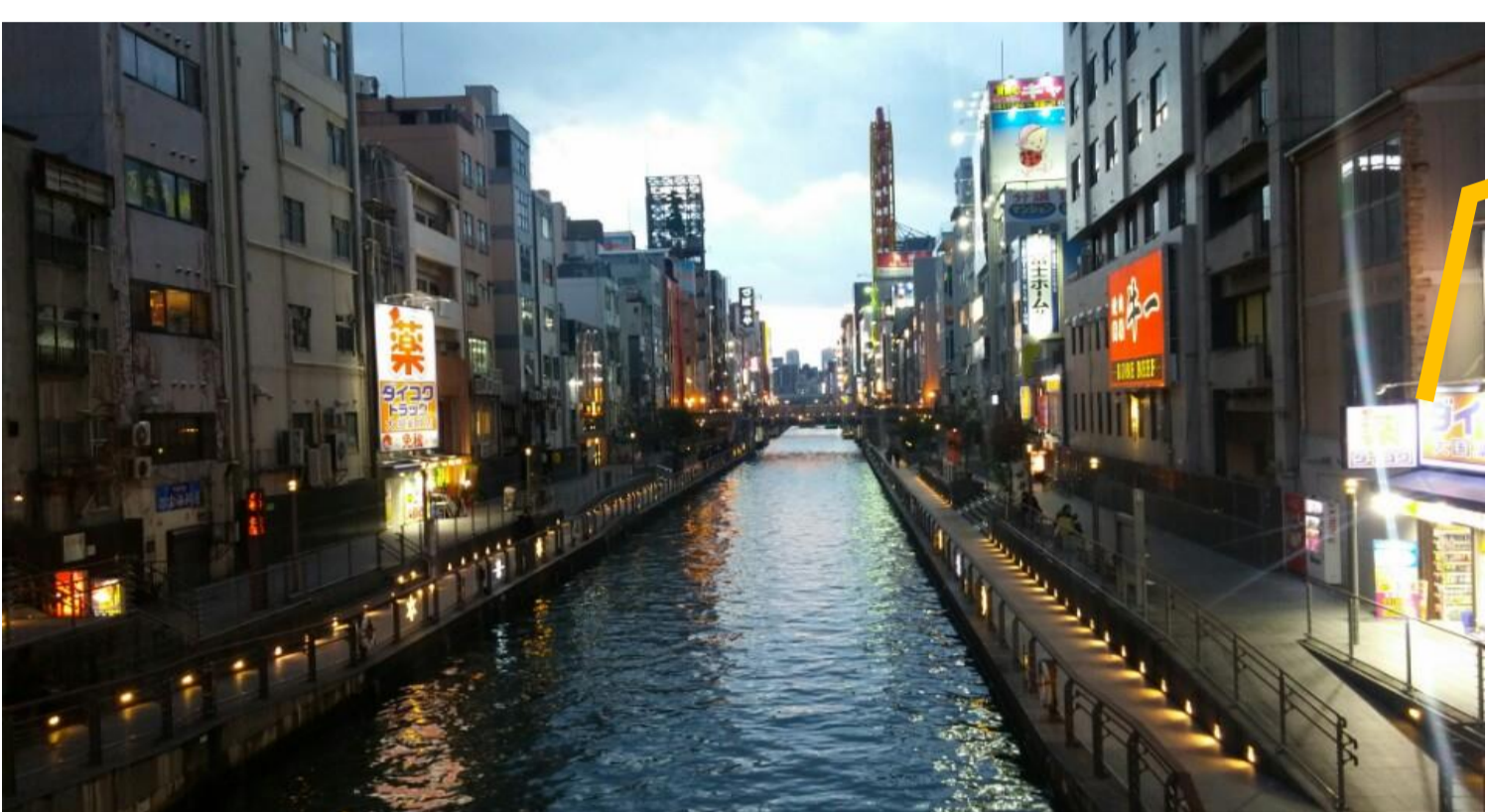
## Osaka



오사카역(우메다역), 도톤보리, 간사이대학교, 오사카성, 국립 민족학박물관

### 오사카의 역사

일본은 과거 관문(關所)을 기준으로 관동지방, 관서지방으로 나뉘게 되었다. 관동 지방에는 대표적으로 도쿄가 있고, 관서지방에는 오사카, 교토 등이 있다. 오사카는 5세기 경에 한반도 등으로부터 중국, 백제 등의 문화가 전래되었다. 나라나 교토가 일본의 수도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오사카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수륙교통의 요충지로,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이후로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다른 지역들의 성장으로 오사카의 경제적 지위는 약화되었고, 메이지유신과 근대국가 성립을 위한 노력은 오카사에게 타격을 주었다. 더불어 2차 세계 대전의 패전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전쟁의 특수를 피한 일본경제는 되살아났기 시작하였고, 오사카는 새롭게 상공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오사카는 수도인 도쿄와 경쟁하며 '일본 제 2의 도시'로 불리며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치하여 상공업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톤보리는 가운데 운하가 흐르는 오사카의 대표적인 변화가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레저 산업인 파칭코나 다양한 가게들이 있으며 힘차고도 서민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게 간판이나 글리코상 등 입체적이고 독특한 간판은 도톤보리의 오래된 명물이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톤보리는 17세기에 지역 기업가였던 Yasui Doton가 상업을 확장하기 위해 두 강을 연결시켜 운하를 완공하면서 생긴 거리이다. 그래서 도톤보리의 '보리(bori)'는 운하를 뜻한다. 1621년에 에도 막부는 도톤보리를 오사카의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래서 '영국의 거리'로 시작하였고 많은 가게들이 생기며 변화하였다.

지금도 도톤보리는 극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점들이 있고, 힘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전쟁 이후 재건되면서 오래된 건축물은 교토에 비해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많은 인파와 상점, 밤에도 빛나는 네온 사인은 도톤보리가 오사카의 대표 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사카성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이다. 16세기에 일본 통일을 완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를 본거지로 정하였고, 오사카성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성은 원래 모습이 아니다. 축성될 당시는 더 화려했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공격으로 소실되었다. 재건되었으나 이후에 낙뢰를 맞아 소실되었고, 1931년 시민의 기부금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오사카성은 원래 모습과 재건된 모습이 혼재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비록 천수각은 재건된 것이나 성벽은 견고하게 지어져 지금까지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적의 침입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와 해자(孩子)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방어 시설에 공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적의 침입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는데도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 민족학박물관에서는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연구기관이면서도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민족학박물관은 문화인류학과 민족학에 대한 연구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공동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1977년에 개관된 국립 민족학박물관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박물관 중 하나이다. 단순히 관람할 뿐만 아니라 체험할 콘텐츠를 꽤 구성하여 여러 민족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기인 PSP로 해설을 제공한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다만,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매우 불쾌할 수 있고, 박물관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 Ky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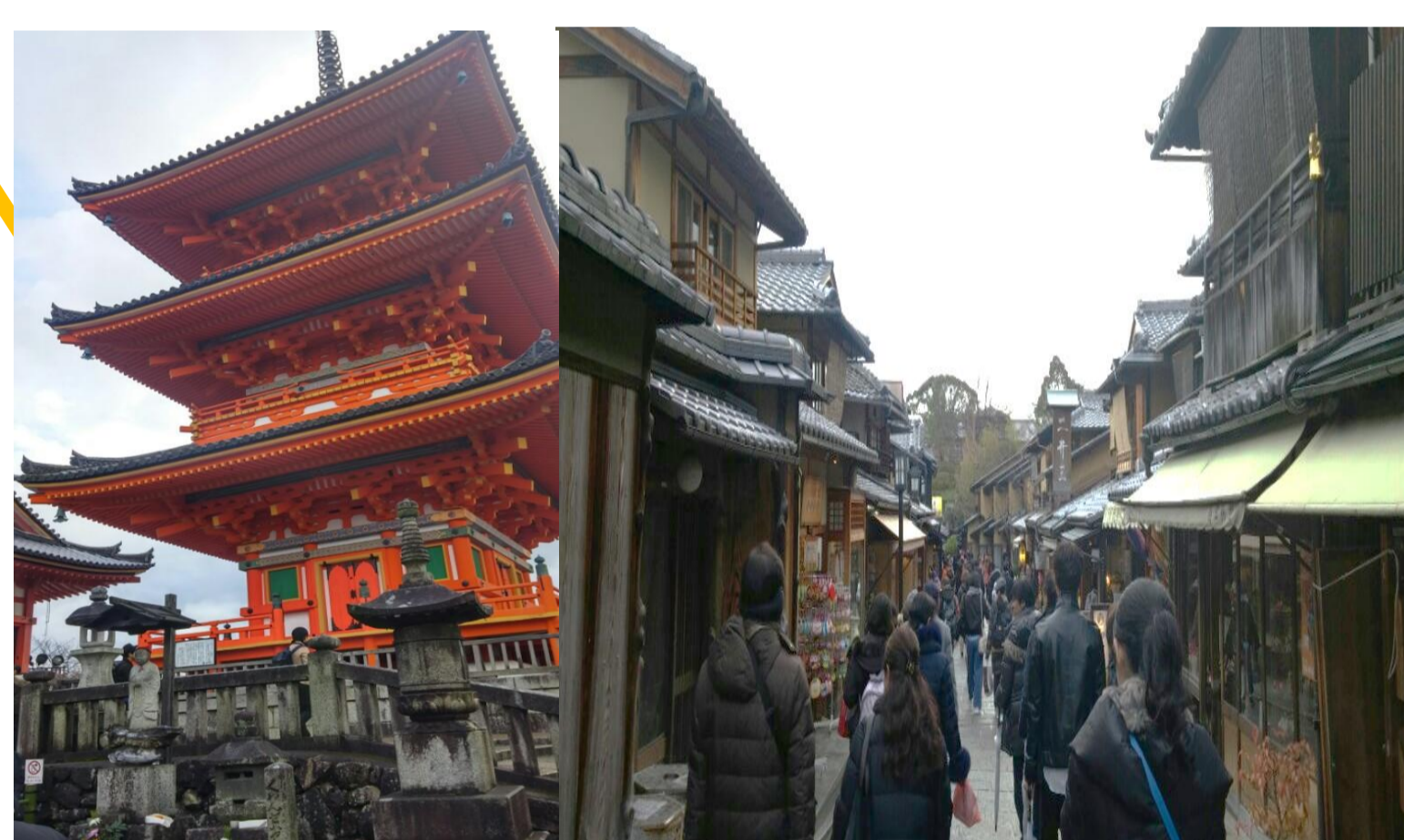
청수사, 닌넨자카, 산넨자카, 아라시야마, 은각사, 철학의 길

### 교토의 역사

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교토는 일본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이다. 약 1200년간 도읍지였다 보니 절과 신사가 많이 남아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17점 위치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전 지역을 황폐화 시켰으나 오랜 역사와 일본의 정신이 담긴 교토의 문화재는 큰 불행은 피할 수 있었다.

교토는 분지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 교토 지역을 눈부신 문화의 도시로 만든 것은 한반도나 다른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공이 컸다. 기와집을 좋아하여 기와로 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현재도 전통가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본의 천 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인 만큼 관서지방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수사는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 장소 중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8세기 승려 엔친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화재로 소실된 적이 있었으며 17세기에 재건되었고, 못이 사용되지 않았다. 청수사를 일본어로 '기요미즈데라'라고 한다. '기요미즈'는 '깨끗한 물, 맑은 물(清水)'을 의미한다. 왜냐면 승려 엔친이 세 개의 물줄기가 흐르는 샘을 발견하여 절을 지은 것이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 줄기는 건강, 학업, 연애를 의미한다. 이를 마시기 위하여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청수사와 연결되어 있는 닌넨자카와 산넨자카는 기와집으로 가득하고, 다양한 물건과 먹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 산넨자카에서 구르면 3년 안에 죽고, 닌넨자카에서 구르면 2년 안에 죽는다는 전설이 있어 저주를 막기 위한 호리병을 파는 가게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은각사는 15세기에 축조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본래 은각사는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금각사를 모방하여 축조를 시작하였다. 금각사가 금으로 치장된 것처럼 은각사는 누각에 은을 입히려 하였다. 그러나 외관에 은을 입힐 정도로 은을 구하기 쉽지 않았고, 난이 일어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은 옷칠이 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은각사 근처에 있는 철학의 길은 일본의 유명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사색을 즐긴 장소로 이름이 붙여졌다. 벚꽃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옆으로는 좁은 수로가 흐르고 있다. 또한 인근에 가옥을 개조한 작은 상점들이 있어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 Nara



대동사, 사슴공원

### 나라의 역사

8세기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 따 만든 헤이조쿄가 나라에 만들어졌다. 나라 시대는 외래 문화(백제, 신라, 당나라 등)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외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나라는 수도로서 오랫동안 위치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였다. 나라 시대 때 왕실의 지원으로 불교가 번성하였는데 교토처럼 나라에서도 뚜렷한 불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동사는 백제인이 지은 절로 알려져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금동대불(높이 15-16m)로 유명하다. 여러 번 화재로 소실 되었으며 현재는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대동사로 들어가는 입구 길에는 네 개의 다른 종류의 돌이 있다. 가운데가 인도, 그 옆에 중국, 한국, 일본에서 왔고, 배치 순서는 불교가 전래된 국가 순이라고 한다. 대동사 지붕의 길이와 길의 폭은 같다. 사찰 밖에는 별을 받고 있는 석가모니의 제자가 빨간 우비를 입고 있는 동상이 있다. 아픈 부위를 만지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나라에는 자연방목으로 자란 사슴들이 있는 넓은 면적의 사슴공원이 유명하다. 8세기에 집권하고 있던 가문이 사슴을 신성시 여겼던 풍습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심지어 사슴을 죽일 경우 극형을 받기도 하였다.



## Conclusion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은 아이러니하게 관광객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이 그만큼 매력적인 국가로 여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 산업에 있어서 한국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이미지에 긴 안목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의 친절한 태도는 사소하지만 방문객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 주니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중국,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한 만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해 보였다. 지역별로 고유한 분위기와 역사를 살려서 구체적인 도시 브랜딩을 시도한다면 한국도 그만큼 매력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